

■ 금주의 프로야구

“꿀찌로 낚느냐, 중위권 도약이냐!” “꿀찌”로 추락한 KIA가 이번 주 인방에서 현대를 상대로 중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시즌 개막과 함께 선발 마운드의 붕괴로 추락하기 시작한 KIA는 시즌 도중 ‘빅초이’ 최희섭의 영입과 용병 두 명을 모두 교체하는 대수술을 단행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다.

호랑이 투·타 재정비 ‘꿀찌 탈출 힘내라 힘’

주중 안방서 현대전, 주말 원정 롯데전 선전 기대

꿀찌 LG(4.33)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7위에 머물 정도로 불안하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제이슨 스코비(29)와 펠릭스 로드리게스(35) 등 새로운 용병 투수 2명이 투입되는 이번 주 6연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다. 또 메이저리그 특급 불펜요원으로 활약한 펠릭스 로드리게스도 이번 주부터 불펜진에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들맨으로 나서는 로드리게스는 특급 마무리 한기주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

Table with 8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Lists team performance for SK, Hanwha, LG, Doosan, Lotte, Samsung, Hyundai, and KIA.

이다. 새롭게 편성된 KIA 마운드가 이번 주중(29~31일) 광주 현대전서 승승장구한다면 주말 롯데전(6월 1일~3일)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는 올 시즌 홈구장에서 9승 11패로 다소 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 KIA로선 다들스렵다. 한편 개인타이틀 경쟁에서는 홈런 13개로 공동 선두인 양준혁(삼성)과 김태균(한화)의 ‘신·구 대결’ 속에 제이콥 크루즈(11홈런·한화), 이대호(10홈런·롯데), 김동주(9홈런·두산), 장성호(8홈런·KIA)의 추격전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8일 경북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전 남자초등부 태권도 라이트 헤비급 8강전에서 광주대표 이석재(왼쪽)와 울산대표 김도환이 격돌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배가람·양학선 3관왕 ‘어깨동무’



광주, 5위 놓고 인천과 경합 전남, 단체종목 부진...12위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제3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는 체조와 양궁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지키지 못하고 5위를 놓고 인천과 막바지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전남은 기대했던 양궁과 단체종목의 부진으로 지난해와 같은 12위에 머물렀으며 보인다. 광주는 배가람(광주체육중)이 이날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중 체조 철봉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지난 26일 단체와 개인종합에 이어 3관왕에 등극했다.



김영이 28일 미국 뉴욕주 코닝골프장에서 열린 코닝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동료선수로부터 물과 음료수로 축하세례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美진출 5년만의 쾌거

■ 김영 코닝클래식 우승까지

김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입문 이후 5년 동안 미뤄왔던 첫 우승을 마침내 일궈냈다. 김영은 28일(한국시간)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188야드)에서 열린 코닝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정상에 올랐다. 김미현(30·KTF)과 플라 크리머(미국)의 끈질긴 추격을 3타차로 따돌린 김영은 2003년 투어에 데뷔한 이후 무려 103개 대회 만에 처음 우승컵을 안는 감격을 누렸다. 2002년 켈리파인스쿨을 공동 4위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통과해 이듬해부터 LPGA 투어에서 뛰기 시작한 김영은 그동안 메이저대회에서만 여섯 차례나 ‘톱 10’에 드는 등 정상급 기량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았으나 정작 우승컵과는 지독히 멀어온 인연이 없었다.

“여흥철 선배같은 선수 되고파요”

남중 체조 3관왕 영예

광주체육중 배가람·양학선

“여흥철, 양태형선배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28일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소년체육대회 남중 체조에서 각각 3관왕에 오른 광주체육중 배가람(사진 왼쪽)·양학선(오른쪽)은 평소 좋아하는 선배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주종목인 빙글과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26일 단체 금메달에 이어 역시 3관왕에 오르는 기쁨을 도했다. 배가람은 서림초등 6학년때 소년체전 철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조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소년체전 3관왕에 오른 등 국내 중학 체조계 1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고, 양학선은 힘이 좋은 반면 유연성이 부족하다. 광주체육중 생두마차로서 우정을 다지고 있는 두 선수지만 게임때는 양보안 없다. 평소에는 볼도 없는 친구지만 철봉을 잡고, 메트에 서면 양보없는 선의의 대결을 펼친다. 배가람이 “학선이 빙글은 국내 최고이며 힘이 부럽다”고 칭찬을 하자 양학선은 “가람이의 유연성이 너무 부럽다”고 화답했다.

“돌봐주신 감독님 부인에게 은메달로 보답하려 했는데...”

여초 배드민턴 동메달 전남 선발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이모(윤진경씨)를 위해서라도 은메달 만큼은 따려했는데...” 28일 제36회 소년체육대회 여초 배드민턴 준결승전이 열린 김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아쉽게 경남선발에 패해 동메달에 머문 전남선발(화순만연초·순천부영초) 선수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해준 신용희(38)감독의 부인 윤진경(37)씨가 바라던 은메달을 선물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전남선발은 이번 소년체육대회를 위해 화순만연초 선수 4명과 순천부영초 선수 2명이 혼합팀을 이뤄 출전했다. 이들 6명의 선수들이 신 감독 부인 윤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올 지난 4월 합숙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윤씨는 남편이 데려온 순천 부영초 2명의 선수들을 자식처럼 돌보면서 혹시나 화순만연초 선수들과 차별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배려



하며 전력상승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들 선수6명 모두 여학생이기 때문에 신 감독과 미혼인 서진아 코치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 이번 소년체전에 6박 7일 일정으로 아예 함께 출장을 왔다. 윤씨는 선수들 빨래는 물론, 요리사, 기사 노릇등 보조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